

## 90년대는 새롭게 태어나자.

90년대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되돌아 보면 80년대의 협회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전혀 성장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침체나 쇠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특히 작년도에는 협회 발전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화재보험이 자율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해체의 운명을 맞이 하였다.

92년 10월 풀은 완전 해체될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인가? 바쁜 일손을 놓고 잠시만 생각해 보자. 일부의 우려대로 풀과 함께 동반 자폭할 것인가? 아니면 변영과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희망의 중대한 기점에 서 있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년 남짓.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운명은 결정되고 말 것이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시행상 거리끼는 것이 많고 변화를 무던히도 싫어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당장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방재를 중심으로한 협회 발전의 확실한 청사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90년대의 협회는 분명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대로는 아무 것도 될 수 없다. 협회의 허약한 체질을 뜯어고치고 개혁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방관자가 되지 말자. 누구나 회사일을 걱정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남이 해주기를 바랄 뿐 직접 나서려 하지 않는다.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는 사람. 협회가 청산해야 할 첫번째 인물이다. 잘못되도 좋다. 내가 먼저 나서 보자.

둘째,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하자. 우리는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여지껏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안타깝게도 타의에 의해서, 외적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변화를 강요당해 왔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되지 못하였다. 이제는 주변여건에 맞는 자의적인 변신이 필요한 때이다.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셋째,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방재만 남게 되는 현 상황에서 모든 잘 잘못의 책임은 우리 기술직원들의 것이다. 「...때문에」라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임원들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다. 그렇다고 원수사, 재무부가 우리의 생존문제를 책임져주겠는가. 「잘되도 잘못되도 다 내 탓」이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넷째, 하는 일에 애정을 갖자. 자기 직장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안전점검은 협회 방재활동중 핵심업무로서 점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애정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긍지와 사명감에 호소하기에는 때가 늦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일에 청춘을 바친 우리로서 이대로 물러날 수만은 없다. 오기와 자존심마저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협회가 지금 안고 있는 근본문제는 점검업무의 방향 설정과 운영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압축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확실한 업무는 무엇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서 모두의 힘을 합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리라.

전체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좋은 의견이 아무리 많아도 「폐야 보배」이다. 휴면상태의 「업무발전 연구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업무량 증가로 인원여유가 없다지만 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연구반원중 몇명은 상근조치하여 협회 장기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전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방재업무의 공과를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실상황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분명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